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87～111

스페인어 문법의 태동과 발달과정

김 정 욱*
(Kim, Jeong-Ook)

〈Abstract〉

El nacimiento de la gramática española y su historia de los siglos XVI- XVIII

El propósito de este artículo es estudiar el origen del castellano y su desarrollo, y abarca tres siglos: XVI, XVII y XVIII. En el año 1492, aparece la gramática de A. de Nebrija, la primera gramática del castellano. Esta es posiblemente la actividad gramatical pura más importante y una obra con el mérito de ser el primer tratado gramatical riguroso de la lengua romance. Es un elemento clave dentro de la historia de la gramática española. Anteriormente a Nebrija, Alfonso de Palencia parte del latín y traduce al español el *Universal vocabulario en latin y en romance,* pero A. de Nebrija es el primer lexicógrafo español con su obra *Vocabulario de romance en latín.*

En el siglo XVI, la gramática de Nebrija se encuentra con la crítica de que latiniza el castellano, pero Nebrija ya advierte que la lengua española no posee la misma estructura que el latín, y en su gramática describe las diferencias entre ambas, en una época en que la única tradición gramatical existente es la gramática grecolatina.

* 전북대 인문대
E-mail: buenos7@hanmail.net

En la obra expone los circunloquios del verbo y destaca la diversidad elemental en los sistemas orgánicos de la conjugación latina y la perífrasis del castellano. Uno de los méritos de Nebrija como gramático de la lengua es su criterio metodológico al determinar las categorías gramaticales, basado en principio en las consideraciones morfosintácticas.

En 1860, A. Bello termina la corrección de su fundamental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A. Bello se convierte en pionero de la denominada "Gramática Funcional" Además de las cinco ediciones que corrigió de su Gramática. (1847, 1850, 1853, 1857, 1860), también publica el Análisis ideológico de los tiempos de la conjugación castellana (1841). En este siglo confluyen las tendencias del racionalismo francés y la tradición renacentista del siglo anterior, resultado de una gran influencia en la lingüística española.

En 1771 se publica la *Grama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pués de ser fundada la Real Academian Española. A pesar de su tradicionalismo, trataba de conjugar un método práctico con principios de doctrina teórica. Los objetivos de la R.A.E son pedagógicos y normativos, lo que la hace útil para estranjeros y le da a su gramática un valor preceptivo. Sin embargo, aún tardarían en llegar las reformas iniciadas por Saussure, centradas en el estudio de la gramática del castellano, tanto a la enseñanza como a la investigación española.

[Key Words: Gramática/ A. de Nebrija/ A. .Bello/ Historia de Gramática]
[주제어: 스페인어 문법사/ 문법개념의 세기별 변천사/ 네브리하 문법/ 베요문법]

1. 서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학문적 작업에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연구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의문(how-question)을 갖는 귀납적 방법론과 연구 대상이 왜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하는 의문(why-question)을 추구하는 연역적 방법론이다. 이 두 가지 학문적 접근 방법론의 결과는 '기술'과 '설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언어학에서는 귀납적 방법 즉 how-의문을 중요시하는 문법을 기술 문법이라 하고, 연역적 방법인 why-의문을 중요시하는 문법을 설명 문법으로 구분한다. 설명 문법으로는 변형 생성 문법을 있고, 기술 문법으로는 전통 문법과 구조주의 문법이 있다.

그리스-라틴 문법에까지 그 뿌리를 소급할 수 있는 역사 문법은 전통 문법의 한 분야인 동시에 기술 문법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설명 문법의 대표격인 생성 문법이 언어 습득과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둔다면 역사 문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변화 과정의 고리를 통시적으로 엮어나가는 연구이다. 역사적 측면의 문법 연구는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언어 현상이나 문법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는 이론의 발달 과정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전통 문법을 대표하는 Nebrija(1492)로부터 시작하여 G. Correas (1625), V. Salvá (1830) 등을 거쳐 A. Bello (1841, 1847-1860) 문법이 나오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스페인어 문법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라틴 문법이 스페인어 문법에 어떻게 수용되고 정립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Nebrija(1492) 문법은 그리스 라틴어의 전통을 계승하여 스페인어 문법

확립에 시금석을 이룬다. 서법은 Quintiliano의 라틴 문법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시기의 문법은 라틴어 용어를 풀어쓰는 정도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초기 문법은 의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만큼 라틴 문법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있었다는 근거이다.

초기 문법에 해당되는 "16-19세기 스페인 문법"은 시대에 근거하여 명명된 명칭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과서용이거나 스페인어를 모르는 성인이나 외국인을 위한 학습용이었다. 이들 초기 스페인어 문법은 문법 현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규범적이라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어 문법의 역사 중 16-19세기에 해당되는 "초기 스페인어 문법"이란 용어는 문법 발달사와 관련된 분류 명칭이고 학교 문법이란 용어는 학교용이나 연습용이라는 저술 목적에 근거한 명칭이다. "초기 스페인어 문법"으로 명명할 수 있는 16-19세기 문법은 castellano의 정체성을 찾고 설명하기에 주력하기보다는 라틴 문법의 전통을 답습하는데 충실했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문법 시기"를 Nebrija(1492)로부터 시작하여 V. Salva(1830)까지나 G. Correas의 *Arte Kastellana*(1625)까지의 문법을 마지막 시기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초기 문법의 마지막 시기를 Bello(1841)의 *Análisis ideológicos de los tiempos de la conjugación castellana* 이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Bello 문법(1841)을 앞지를 만한 문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성을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라틴문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기"에 해당되는 16-19세기 스페인 초기 주요 문법의 성립배경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중세부터 나타난 스페인어의 서술역사를 간략하게 기술할 것이다. 스페인 문법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다음 세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 문법서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시대마다 문법적

의미를 역사적 시각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독자적인 문법유형으로 발전하는 중세시대의 스페인 문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나아가 스페인어 문법이론의 보급 및 일반화 과정에 해당되는 18-19세기 규범 문법, 철학 문법의 출현까지의 소개와 함께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다음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리고 스페인어 문법 이론의 완성기임과 동시에 언어학 속의 스페인어 문법으로 탈바꿈한 20세기 스페인어 문법사 연구도 다음 연구에서 계속하고자 한다.

2. 중세 시대 라틴 문법의 역사

서양사에서 중세는 로마 제국 붕괴에서 문예 부흥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다. 중세 시대 교양 과목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교과목이었고 문법은 중세 시대 주요 교양 과목의 하나였다. 중세 시대의 문법은 보통 학습 문법과 사변 문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라틴 문법에 수정이나 비판 없이 답습한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문법이지만 사변 문법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문법 현상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12세기부터 문예부흥기 문법까지다.

사변 문법은 Prisciano와 Donatus가 희랍 문법을 토대로 하여 라틴어 문법 현상 기술에서 그친 라틴 문법에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Prisciano와 Donatus는 라틴 문법의 대표적인 학자일 뿐 아니라 고대와 중세의 문법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 문법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세 시대 문법의 최고 목표는 실용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Donatus, Prisciano문법은 교수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세 사람들이 라틴 문법의 고전인 Donatus

의 *Ars Gramaticae* 와 Prisciano의 *Instituciones Gramaticae*를 통하여 물려받은 전통은 라틴어의 표면구조를 철저하게 기술하는 기술 문법이었다. Prisciano가 쓴 I*nstitutiones Gramaticae(Principle of grammar)*는 고대에 집필된 라틴 문법서 가운데서 라틴어를 포괄적으로 다룬 가장 권위 있는 라틴 문법서이다(Percival, 1987:66).

Varro를 제외한 초기 로마 문법 학자들은 대부분 그들이 다룬 문법의 주제는 그들에 앞서 이미 논의된 것들을 반복할 뿐 독창적인 것이 없었다. 그러나 Varro로부터 Donatus Prisciano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에 라틴 문법의 발달에 다소나마 이바지한 문법 가로 서기 1세기경의 Quintiliano를 빼놓을 수 없다. Quintiliano는 라틴어로 문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웅변의 원리(Instituto Oratoria)』에서 라틴어 문법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희랍어에는 없는 탈격을 의미에 근거하여 하나의 독립된 라틴어 격으로 분류하였다. Quitiliano는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할 만큼 교육을 중요시하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laus, 1969:6-7, 78-91).

그리고 로마 시대에 쓰인 문법 교과서로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문헌 중 가장 유명한 것은 Donatus(400 A.D)와 Prisciano(500A.D)의 문법이다. 서기 350년경에 집필된 Donatus 문법『Ars Major』와『Ars Minor』는 Prisciano 문법과 함께 중세 라틴어 문법의 표준 교과서로 100년 이상 사용되었다. 이들 두 문법서는 그 후 라틴어의 품사 수를 여덟으로 결정짓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특히『Ars Minor』는 라틴어 문법의 기초를 간략히 문답식으로 기술하였다. Donatus 문법이 이론 면에서 아무런 독창성은 없지만, 문법 교과서로서 성공을 거둔 것은 그의 독특한 문답식 서술 방법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Hovdhaugen, 1982:89).

2.1. 중세 시대의 문법개념

중세부터 문법이란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문법 의미부터가 원래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 희랍어 grammatike를 옮긴 라틴어 “grammatica”의 표기이다. 오늘날 문법이라는 언어학의 한 분야를 지칭하는 문법의 용어와는 매우 다른 의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용어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 변화를 겪어 왔다. 기원전 2세기경 Thrax는 grammar를 “시인이나 산문작가의 어법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하고, 언어의 문법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문법 학자의 임무라고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책이름 «문법학(Tekhne)»의 “Tekhne”가 가진 본래의 의미인 학문의 경지로 문법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실용적인 지식(empeiria)의 수준에 머물게 했다. 따라서 그 당시 문법 학자들은 문법을 “낱말”로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실용적 지식(empeiria)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용한 “art”는 도나투스의 문법을 모방한 것이고, 라틴어 “ars”는 슬랙스의 문법 Tekhne Gramamatike의 “Tekhne”를 모방한 것이다(Robins, 1957:39).

여기서 “art”는 학문(tekhne)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 문법에서는 보통 형태론(morphology)과 통사론(syntax)을 합하여 “grammar”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grammar”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쿼크 외 1985:12-14). 오늘날 언어학의 한 분야를 지칭하는 “문법”의 용어와는 매우 다른 의미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 용어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의미 변화를 겪어 왔다.

2.2. 중세시대 스페인어 문법의 태동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15세기 말까지만 해도 라틴어만이 문법이 있는 유일한 언어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지식인들은 라틴어가 가장 이상적인 언어라 믿고 고전어에 대한 자신들의 조예를 앞세우면서 주로 라틴어로 저술 활동을 하였다. 그들은 16세기 전까지 모국어와 Castellano문법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다가 문예 부흥과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 Castellano에 대한 사랑과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1492년 스페인 최초의 문법서인 Nebrija의 문법이 출판되었다.

스페인 최초의 문법서인 Antonio de Nebrija의 *Gramática Castellana*가 철자법, 품사론, 통사론, 그리고 운율론의 4부로 구성된 것도 Prisciano의 *Gramaticae*에서 나온 라틴어 문법 체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어떻게 정확히 쓰느냐를 다룬 철자법이고 둘째 부분은 낱말의 어형 변화를 중심으로 언어의 규칙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셋째 부분은 낱말이 어떻게 결합하여 문장이 되는가를 다룬 통사론이다. 우리는 Varro, Prisciano, Donatus 와 같은 중세 문법 학자들의 문법 연구를 통해서 철자법, 어원론이 어떻고 그가 언어의 규칙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Nebrija는 말의 구성단위를 소리, 낱말, 그리고 문장으로 나누고 소리는 철자법과 운율론에서 문자를 기술하면서 다루고, 낱말은 형태론에서 그리고 문장은 통사론에서 다루었다. Nebrija는 낱말(dicto)을 문장구조의 최소단위(Dicto est pars minima orations)(R. H. Robins 1957:64)라고 주장한 Thrax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oratio는 하나의 완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낱말의 배열을 의미한다. oratio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의문문의 대답이 되는 하나의 낱말도 oratio이다. 이 시기의 문법은 문법 체계뿐만 아

니라 라틴 문법의 품사 체계도 모방하였다.

Nebrija 문법도 그리스-라틴 문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스페인어학의 시금석을 이루었다. Nebrija(1492)를 위시한 초기 문법은 Castellano 문법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Prisciano와 Donatus의 품사 체계인 명사, 대명사, 동사, 분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감탄사를 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Prisciano를 추종하여 동사의 활용형을 8가지(especie, figura, género, modo, tiempo, número, persona, conjugación)로 정의하고 있다. Nebrija는 Salamanca 대학의 라틴어 교수였기 때문에 그의 저서가 고전 언어 문법의 형식이나 구조와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결점들 때문에 그의 저서가 라틴어 문법의 번역에 그친다고 혹평을 받고 있다(Cristobal de Villalón, 1971:6).

Nebrija가 스페인어 연구에 기울인 노력에도 Castellano를 라틴어화(latinización)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Castellano를 라틴어와 구별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동사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1].

Nebrija와 동시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Nebrija 문법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Sarmiento et Al., 1992). 그 당시 Nebrija 문법의 해석상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앞으로 갖게 될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Nebrija 문법은 단순히 참고 문헌이 아니라 스페인어를 배우고 학습하는 방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업적이었다.

Nebrija는 그리스 라틴어의 전통을 계승하여 스페인어 서법 확립에 있어서도 시금석을 이루었다. 그 중요성만큼이나 당시 스페인 문법학자들의 Nebrija문법에 대한 칭찬과 비판도 많았지만, 그의 문법서는 당대의 학자들이 참고하는 주요 문헌이 되었다. Nebrija(1492)가 저술한

1) 특히 «perifrasis», 그의 용어로는 «los circunloquios del verbo»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Castellano문법은 스페인어 문법과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Nebrija(1492)는 문법책을 쓰게 된 "여러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의 책이 스페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길잡이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Nebrija1492:서문)"라고 밝혔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단어집과 어휘사전(2개 국어) 정도가 가장 좋은 교재였다. *Introductiones Latinae*(1495)』도 라틴어를 배우기 위해 쓰인 것이었지만 이 문법은 라틴어를 통한 스페인어 학습에도 유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단어집의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스페인어에도 적용되어 많은 출판이 이루어졌다. 유명한 스페인어 사전으로는 1490년 세비야에서 출판된 Alfonso Fernanndez Palencia의 *Universal vocabulario en latin y en romance*가 있다. Nebrija도 여러 종류의 단어집(사전)을 편찬했는데, 1490년에 *Diccionario latino-espñol,* 1495년에는 *Vocabulario espñol-latino*, 그리고 1516년에는 세비야에서 *Vocabulario de romances en latin*을 편찬했다.

최초의 스페인어문법서인 Nebrila, A. de (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는 완성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스페인어 문법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스페인어 문법서이며 앞으로 나타날 스페인어문법 학자들에게 하나의 서술 양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법사적으로 볼 때, 가장 오래된 스페인어 문법서로서 스페인어전통문법의 틀을 제공한 점, 라틴 문법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스페인어를 그 틀에 그대로 맞추지 않고 유연하게 적용한 점 그리고 스페인어를 바르게 읽고 쓰기 위한 기술을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문법서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당시 Nebrija(1492) 외에도 문법과 철자법을 저술한 4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Antonio del Corro(1590), Anónimo(1555), Villalón(1558), Anónimo

(1559), G. Correas(1625)가 바로 그들이다. A. del Corro(1590)가 지은 *Reglas gramaticales para aprender la lengua española y francesa*는 1590년 프랑스에서 인쇄되었는데,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철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문학적 글을 통해 소개한 책이다. 이 문법책은 모든 알파벳을 설명하고 문자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리의 특징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ónimo의 두 저서 중 하나는 *Útil y breve institucione para aprender los principios y fundamentos de la lengua española(1555)*이다. 외국어로서의 스페인어 학습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 문법서의 글씨는 빽빽하고 내용은 단순하며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문법적 설명은 별로 없어 외국인들에게 사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면에 *Gramática de la lengua vulgar de España* (1559)는 스페인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책은 아니었지만 모국인보다 외국인들에게 활용도가 더 큰 문법이었다. 저자는 스페인어 알파벳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다른 언어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스페인어 철자를 발음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고전 언어 등 다른 언어와 비교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 당시 스페인어 문법은 Castellano를 잘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어휘와 발음에 한정되었으나 이 어휘와 발음 부문은 철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기도 하였다.

Nebrija(1492)에서부터 A. del Corro(1590), G. Correas(1625)를 거쳐 Anónimo(1555, 1559)에 이르기까지 15세기 문법을 중심으로 한 초기 문법은 낱말의 철자를 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쓰인 글을 정확하게 읽도록 가르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초기 스페인어 문법은 Castellano를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쓰인 문법이다. 따라서 초기 스페인어 문법은 Castellano를 올

바르게 쓰고 말하는 방법을 “기술(arte)”로 표기하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art”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다. 문법은 말하고 쓰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이다. 통속어(lengua vulgar) 문법 존재는 언어의 형식적인 요소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외우는 데 노력이 집중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Castellano 문법이 라틴어 문법을 배우기 위한 수단도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Nebrija 문법(1492)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대단한 사건이었다. 16. 17세기 스페인 문법은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습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으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요소를 담은 저서가 한 권 출판되었다. 그 책은 G. Correas가 쓴 Arte Kastellanas (1627)이다.

Correas 문법은 교습과 관련한 언어의 역사와 큰 관련이 있다. 그러나 Correas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 예로, 통속어와 문법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다루면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경험론적인 증거를 활용했다. 몇 세기가 흐르고 제2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모국어 습득 과정이 도움될 것이라는 결론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모국어 학습과정의 실상에 대해 Correas가 고민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사실상 모국어는 문법이나 규칙 암기 과정을 통해 습득되지 않는다. 배움이 없는 문맹자들이 문법을 배운 적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자신들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사실(Aldrete, 1606:48)만으로도 입증된다.

Correas(1627)도 문법 제목을 “Castellano를 배우기 위한 기술(Arte Kastellana)”로, Corro(1590)도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한 문법적 규범(Reglas gramaticales para aprender la lengua española)”으로, Anónimo(1555)도 스페인어 원리와 기초를 배우기 위한 실용적이고 간결한 교과서(Util y breve institución para aprender los principios y fundamentos de la lengua

española)로 정의한다. 그 당시 Castellano 문법이 없는 상태에서 라틴어에 조예가 깊었던 인문주의 학자들이 Castellano 언어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법을 구상하면서 맨 먼저 의존한 것이 라틴어 문법, 즉 학교에서 가르칠 목적으로 쓰인 라틴어 학교 문법이었다.

16-19세기에 해당되는 초기 스페인 문법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나 문법의 정의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초보자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쓰인 학습 문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스페인 문법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을 학교 문법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2.3. 중세 시대 학교 문법의 개념

Prisciano와 Donatus는 라틴 문법의 대표적인 학자일 뿐 아니라, 고대와 중세의 문법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문법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세 사람들이 라틴 문법의 고전인 Donatus (c.350)의 실용 라틴 문법(Ars Grammatica)과 Prisciano(c.500)의 문법의 원리(Institutiones Grammaticae)를 통하여 물려받은 전통은 라틴어의 표면 구조를 철저하게 기술하는 기술 문법이었다. 학교 문법은 이들 두 라틴 문법을 모방하고 주석을 붙이는 것이 주된 일이었고, 관찰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이처럼 학교 문법이 라틴 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이론적인 면이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문법 발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경우, 중세의 학교 문법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법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000년경의 앨프릭(Aelfric)이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라틴어에 대한 문법을 썼다는 점에서, 그리고 1200년경의 빌디어의 알렉산더(Alexander of Vill-dieu)가 라틴어 시 운율로 쓴 문법원리*(Doctrinale)*가 중세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학교 문

법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목을 받을 만하다.

1200년경에 집필된 알렉산더의 문법 원리는 라틴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 가르치기 쉽고 외우기 쉽도록 6보격 운율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중세의 다른 라틴 문법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의 문법도 주로 Prisciano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Prisciano가 라틴어 통사론을 방대하게 다루었지만, 알렉산더는 2,600여 행으로 된 그의 문법 중에서 다만 170여 행만을 라틴어 문장 구조, 격 형태, 시제, 관계 대명사 등을 다루었다. Prisciano는 고전 라틴어를 다루었지만, 알렉산더는 그 당시 식자층이 사용한 중세 라틴어를 예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학교 문법이다. 이러한 불만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13세기 초 사변 문법이 등장할 때까지 알렉산더의 문법 원리는 중세 후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학습 문법이었다(Robins, 1957:67-106).

2.4. 중세 스페인어 학교 문법의 역사

18세기까지 스페인어 전통 문법은 주로 학습 문법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학교 문법은 흔히 전통 문법 범주에 포함되지만, 초보자를 위한 문법으로서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문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19세기의 Salvá나 Bello를 위시한 전통 과학 문법과는 그 목표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초기 스페인 문법은 학교 문법은 물론 V.Salva 문법(1830)과 같은 보편 문법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초기 스페인 문법과 보편 문법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 문법에 대한 시대적 구분과 그 특성에 따른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Esbozo(1973) Gili Gaya(1961)가 대표적인 학교 문법이지만 초기문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8세기까지의 문법과 19, 20세기 문법은 공통으로 전통 문법 범주에

속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다. Nebriaja 문법 이후부터 18세기까지의 문법은 Castellano를 가르칠 목적으로 규범을 중요시하는 학교 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Salvá와 Bello 문법은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전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통 과학문법"이라는 명칭이 사용 가능하다. 18세기까지 학교 문법은 라틴 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이론적인 면이나 방법론적인 면에서 문법 발달을 살펴보고자 할 경우,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법학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림원이 권위 있는 문법서를 1771년과 1779년에 출판하였다는 점과 G. Coreas(1625)의 문법은 주목을 받을 만하다.

초기 문법 중에서도 특히 16, 17세기는 Nebrija 이론을 답습하여 주로 의미적인 정의를 한 시기이다. 서법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 새로운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서법의 종류나 라틴어와의 관계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이 시기 대부분의 문법서는 라틴 문법에 기초하여 서법을 정의하였다.

Nebrija(1492)이후 18세기까지 4세기 동안은 서법을 의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나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는 Bello(1860)의 통사적인 정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A. Bello(1847, 1850, 1953, 1957) 문법 탄생은 Nebrija(1492)부터 Salvá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문법에 면면히 내려오던 라틴 문법의 영향에 종지부를 찍는 분기점을 이루었다(Rosenblat, 1961:44, A. Alonso, 1951: IX).

Nebrija는 그리스 라틴어의 전통을 계승하여 스페인어 문법 확립에 시금석을 이루었으며, 특히 서법은 Quintilano의 라틴 문법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희구법과 명령법을 서법으로 설정한 점은 라틴 문법 모방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희구법과 명령법을 분류하던 라틴 문법의 전통은 그 당시까지도 고수되다가 17세기

Correas(1625)부터 서법 분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7세기 들어 서법을 엄밀하게 정의한 학자로 Correas(1627)를 들 수 있다. Correas(1627)의 형태적 측면의 문법 정의는 현대 문법의 서법 정의와 가장 근접한 이론이었으나, 이론 자체는 당시 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학자의 이름만 후세에 전해지는 정도이다. 서법 개념을 동사 자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문장의 전체 의미로 확대, 정의하였기 때문에 직설법, 접속법 이외에 희구법 등의 서법 분류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부정법 구분은 스페인어에서는 동사 활용이 되지 않음에도 라틴 문법 이론을 답습한 결과이다. 16-19세기는 스페인 문법이 새롭게 형성, 발전하기 시작한 초석이 되었으며 라틴 문법의 전통을 고수한 마지막 시기로 볼 수 있다. 형태소 자체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의미적인 관점에서 접속법과 희구법을 분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르네상스 시대는 스페인어를 문법적으로 규격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하지만, 아직 체계가 갖춰진 철자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중앙집권적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공인된 표준 어형도 없었다. 16세기 스페인어는 중앙집권적 애국주의자들이 바라는 열망에 부응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지니게 되었으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16세기 문법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누구보다도 스페인어 교육을 맡은 교사 인쇄업자들은 구어와 문어 간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문법기술을 원했다. 당시에 철자법에 관한 서적이 많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에서 철자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 짐작할 수 있다.

2.5. 중세 스페인어 문법의 성격: 실용 문법과 이론 문법

16세기에는 최초로 인쇄된 스페인어문법이 출간되었다. 대부분의 문법은 서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활자화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한 문법규

칙, 어형 변화표 및 문법범주에 대해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도 규칙이 있고, 문화언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 문법서들을 저술한 학자들의 노력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 저술된 대부분의 스페인어 문법은 텍스트 읽기와 분석을 하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편찬된 실용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 17세기 스페인어 문법

17세기 문법 활동은 16세기 연장이기도 하고 단절이기도 하다. 연장이라는 것은 16세기와 마찬가지로 17세기에도 실용적인 문법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고 단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법연구의 방향이 태동하였다는 뜻이다. 실용문법의 성공은 스페인의 문화적 급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용적인 문법서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변화는 이론적인 틀도 제시되어 있고, 저자들이 매우 명확하고 정확한 기술을 하기 위해 고심하였다는 점이다. 17세기 Anónimo(1555), Villalon, Licenciado(1558), Anónimo(1559), 문법이 스페인어 구조의 서술에 방향을 두고 있다면, Correas(1627)의 문법서는 형태와 구조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문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법서들은 명사(실사와 형용사), 대명사, 동사, 부사, 분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와 관사를 포함하는 품사의 순서를 따라 서술하고 있다. 대개 음성과 철자에 대한 설명 다음에 단어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형태 부분에서 각 품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예외적 사항에 대한 기술을 한다. 이런 맥락에서 17세기 문법서들은 16세기 문법

개론서의 흐름을 이어가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17세기 문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찾기는 어렵다.

4. 18, 19세기 스페인 문법

16세기 스페인어 문법은 스페인어의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결과 독자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할 가치가 있는 언어로서 스페인 어를 인정하고, 나아가 스페인어의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문법 연구의 흐름은 17세기에도 이어지며 실용문법서의 차원을 넘어 규범문법, 철학문법과 같은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조성되어 스페인어문법의 독자적인 틀을 완성하게 될 18세기 스페인어문법을 준비한다.

18세기는 스페인어 문법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Port Royal 문법의 영향으로 구조적인 측면의 문법 연구가 스페인어 문법에 도입된 시기이다. 1771년 스페인 최초로 한림원의 권위로 문법을 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베리아 반도에서 Castellano 공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E. S Procter, 1934). 이 당시 한림원의 보수성은 서법 이론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R.A.E 1판(1771) 이론이 Nebrija 문법 이후 3세기 동안 축적되어온 절대적인 라틴 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한림원 최초의 문법서(R.A.E 1판: 1771)의 출간으로 스페인 주체적인 문법 연구가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Manuel Tobada Cid, 1981).

4.1. 18,19세기 문법의 성격: 규범 문법과 철학 문법

한편 18세기에는 새로운 방향의 스페인어연구 방법론이 태동하기도

한다. 권위 있는 스페인어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스페인 한림원에 의해 설립된 Real Academia Española는 스페인어의 사용을 심사하고 규범으로 결정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서 순수주의 문법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스페인어 표현과 스페인어 구성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 통용되지 않거나 비속어로 인정되는 표현들에 대한 사용금지, 심미적인 형태나 구조의 중시는 순수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이 시기 문법들이 보여주는 관점은 기술적인 문법의 관점이 아니라 우아하게 말하는 방식에 관한 규범서로서의 시작이다.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은 문법연구에 철학적 관점을 도입한 것이다. 데카르트 철학과 방법론을 도입한 이런 접근 방식은 1660년에 출판된 Salvá와 Bello의 문법에 해당되는 일반 이성 문법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앞 시대의 문법 전통에서 얻은 지식들을 통합하여 이를 사고 이론에 결합한 것이다. 논리학적으로 우리의 정신작용을 인지, 판단, 논증의 세 단계로 나눈다. 인지단계는 실물에 대한 이해, 표현단계이다. 판단단계는 인지단계에서 획득한 것을 활용하는 단계이며, “이다.” 혹은 “아니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논증단계는 일련의 판단들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판단을 추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단논법구조) 이러한 논리 분석 단계를 언어 단위에 적용하여 두 종류의 단어 계열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Salvá나 Bello문법이 스페인어 문법 체계를 확립, 집대성한 과학적인 기술 문법임에도 구조주의 문법이나 생성 문법 등과 구별하여 전통 문법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라틴 문법의 품사 체계와 문법 체계를 물려받아 문법 현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격은 실사가 동사, 명사, 전치사와 같은 낱말에 대해 갖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격은 명사가 갖는 문법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명사 편에

서 다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사, 명사, 전치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격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전치사를 논의하고 격은 장을 달리하여 다루었다. 희랍어와 라틴어와는 달리 현대 언어는 대부분 형태로 격을 구분하지 않고 주격, 목적격은 어순으로 구별하고 여격, 소유격은 전치사로 나타낸다. 한림원을 비롯한 이 시기 문법은 격은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언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격이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희랍 문법은 감탄사를 부사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감탄사는 동사의 속성을 나타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부사와 공통점이 없다. 감탄사는 의식적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재미있는 사건이나 광경에 접하여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소리이며 문장 안에서 다른 낱말과 문법적인 관계가 있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 시기 문법에서도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시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페인 보편 문법이 품사를 논의하는 데에 그치고 통사론 즉 문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언어 현상을 실재 세계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가 가진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18세기 이후의 문법과 학교 문법은 차이가 있다.

18세기 이후의 보편 문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래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분석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인간 이성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18세기 이후의 스페인 보편문법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16-19세기 초기 스페인 문법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표나 문법의 정의

그리고 독자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초보자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쓰인 학교 문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스페인 문법은 대부분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학교 문법이라고도 한다.

초기 스페인 문법은 라틴 문법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전통문법은 기술 문법이면서도 단순히 문법 현상을 기술하는 기술 문법의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어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 서로 다른 두 언어를 비교하기도 하거나 여러 언어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등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단한 시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8-19세기 초기의 스페인 전통 문법은 기술 문법이면서 동시에 설명 문법에 속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직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 문법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 필수적이며 문법 이론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Aarsleff, H. (eds.)(1987), *Paper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larcos Llorach, E.(1970), *Estudio de gramática funcional de español*, Madrid: Gredos, 1977 (3 ª ed.).

Aldrete, Bernardo José de(1606), *Del origen y principios de la lengua castellana o romance que oi se usa en España*(Edición facsimilar de L. Nieto, Madrid, CSIC, 1972), Roma.)

Alonso A.(1981), "Introducción a los estudios gramaticales de Andrés Bello"

en *el III Congreso de Bicentenario de Andrés Bello*, Caracas, 1981, Vol. I, pp.461-470.

_____(1948), "Identificación de los gramáticos españoles clásicos", *RFE,* XXXV, pp.221-236.

Álvarez de Miranda, P.(1992), "La lengua española, hoy (VII) la Real Academia Española", en Bolitín Informativo 225, Fundación Juan March, Diciembre, p.13.

Anónimo(1555), *Útil y breve institución para aprender los principios y fundamentos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1966): Edición facsimilar con estudio introductorio e índice de Antonio Roldán, Clásicos Hispánicos, CSIC.

_____(1559), *Gramática de la lengua vulgar de España,* Madrid: Edición facsimilar y estudio de Rafael de balbín y Antonio Roldán, CSIC, 1966.

Audin, Jean M. V.(1842), Nouveaux dialogues familiares et progressifs francais-espagnol al' usage des voyageurs, par Richard (pseud.)et don J.M. Corona, Paris.

Bello A.(1841), *Análisis ideológicos de los tiempos de la conjugación castellana* en *Obras Completas*, Vol. 5, (Estudios gramaticales) Caracas, Venezuela: Ministerio de educación, 1951.

_____(184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 al uso de los americanos*, Edición crítica de Ramon Trujillo, Instituto universitario de lingüística Andrés Bello, Cabido Insular de Tenerife, 1981.

Correas, G. (1627), *Arte Kastellana, Edición de Manuel Tobada Cid*, Univ. de Sntiago de Compostela, 1984.

Corro del, A.(1590), *Reglas gramaticales para aprender la lengua española y francesa,* Madrid: Estudio de edición de Libro Nieto, Arco /libro, S.A., 1988.

Cristobal de Villalón, *Gramática Castellana(1971),* Madrid: *Edición facsimilar y estudio de Constantino Garcia*, CSIC, p.6.

Domínguez Caparros, J. (1976), "La gramática de la Academia del siglo XVIII", *RFE,* LVIII, pp.81-108.

Gila Gaya, S.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Vox-Bibliograf, 1983 (15ª ed.).

Hovdhaugen, Even.(1982), *Foundations of Western Linguistic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First Millennium A. D.*, UNiversitetsforlaget: Vojens.

José Domínguez, C. (1976), "La Gramática de la Academia del siglo XVIII", *RFE*, LVIII.

Lázaro Carreter, F.(1949), *Las ideas lingüísticas en España durante el siglo XVIII*, RFE, Anejo XLVIII, Madrid.

Lenz, R.(1920), *La oración y sus partes: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l y castellana*, Madrid, 1925 (2ª ed.).

Manuel Tobada Cid(1981), "Notas para una edición de las primeras gramáticas", *Verba*, Vol. 8, p.80.

Maquieria Rodríguez, M.(1984), "Panorama gramatical entre 1771-1847", *Contexto,* II/4, pp.181-189.

Miranda, Giovanni (1566), *Observationi della lingua castigliana,* Venegia: di Giovanni Miranda, devise in quatro libri, (Con privilrgio, Apresso Gabriel Giolito de Ferrari).

Nebrila, A. de (149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Edición de Antonio de Quilis, Editora Nacional, 1980.

Oudin, C. (1660), *Tesoro de las dos lenguas española y francesa(por Juan Mommartre) Bruxelles.*

Percival, W.K.(1987), "On Priscian's Syntactic Theory: the Medieval Perspective", in H. Arsleff(eds.)(1987), *papers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Quirk, Greenbaum, S., Leech, G., & Starvik, J.(1985), *A Compr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eal Academia Española(1890),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Viuda de Hernando y Compañia.

_____(1917),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Perlado Paez y Compañia.

_____(192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Perlado Paez y Compañia.

_____(193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spasa-Calpe.

_____(1959),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Espasa-Calpe.

_____(1962),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Madrid: Espasa-Calpe.

_____(1741), *Ortographia esapanola*, Madrid.

_____(1771)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ición de Ramon Sarmiento, Editora Nacional, Madrid), 1984.

_____(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Calpe, 1982 (8ª ed.)

Robins, R. H. (1957), "Dionysius Thrax & the Westwrn Grammatical Tradition", in Transaction Society, pp.67-106.

_____(1997),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second edition)*, Longman, London.

Salus, Peter H (ed.)(1969), *On language: Plato to von Humbold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Salvá Vicente (1830),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según ahora se habla,* Paris, 1852, (9ª ed.).

Villalon, (Licenciado) (1558), *Gramática castellana, Arte breve y compendiosa para saber hablar y escrevir en la lengua castellana congrua y decentemente*, Anvers.

Villalon, C. de(1971), *Gramática Castellana*, Ed. facsimilar y estudio de Constantino García, CSIC, Madrid.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